



시·도지사 취임 선서

박광태 광주시장(왼쪽)과 박종영 전남지사가 3일 오전 각각 취임식을 갖고 민선 4기를 시작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수도 건설 등을 통해 잘사는 광주 건설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전남의 특성을 살려 농업을 살리는 데 주력하고 미래성장 동력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발로 뛰는 생활정치 펴겠다”

광주·전남 첫 여성의회 나정숙 서구의회 의장



아래 이변을 만들어 냈다. 나 의장은 특히 광주 서구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김택중씨를 남편으로 두고 있어 부부가 모두 한 지방의회의 의장이 되는 진기록까지 갖게 됐다.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3일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광주 서구의회 나정숙(48·민주당) 의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잘 살려 가정 살림 하듯 주민과 함께 발로 뛰는 생활정치를 펼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나 의장은 “광주 서구의회는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 비율이 7대 6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된 만큼 좋은 정책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며 “당리당락을 초월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장은 이날 개원한 광주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13명 의원으로부터 7표를 얻어 6표를 얻은 같은 당 김경호(46) 의원을 따돌리고 제5대 전반기 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이나 서구청에서는 김 의원의 당선에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지만 나 의장은 열린우리당(4명)과 민노당(2명) 의원, 그리고 여성 의원(6명)들의 지원

가 모두 한 지방의회의 의장이 되는 진 기록까지 갖게 됐다.

나 의장은 “평소 원구성이 잘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당이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지가 많은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장은 광주 YMCA 이사를 역임한 것을 비롯해 교육 소비자문제 연구원 원장, 광주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위원 등 17년간 시민단체활동을 해 온 사회운동가 출신이다.

한편 이날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장으로 강기석(51·열린우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5대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 어떻게 돼가나

강박원·나종천·서채원·손재홍 4파전

제5대 광주시의회 의장 선출을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자간 물밑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3일 현재 의장선거 구도는 4파전 양상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재선 이상인 강박원·나종천·서채원·손재홍 의원이 강력하게 의장을 꿈꾸며 동료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김후진 의원이 열심히 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지나 시의회를 떠나 있었던 지난 4년간의 공백 때문에 불리한 여건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번 시의장 선출 구도는 일단 ‘강박원·서채원’ 대 ‘손재홍·나종천’ 의원간 2대 2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산구 출신인 60대의 강박원 의원은 같은 구 출신 의원들의 지지 아래 40대 서채원 의원을 끌어들이 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가에서는 서 의원이 당초 후보자 의장을 노리고 강 의원의 전반기 의장 선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광태시장·유종필위원장 의중 변수로

박빙 예상... 주말께 양자대결 압축될 듯

최근 들어 후반기 의장 구도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감안,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구 출신이자 40대의 손 의원 역시 같은 지역 출신 의원의 지원 아래 60대의 나종천 의원과 연합, 의장 선거 구도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손 의원 측은 이미 확실한 표를 7~8표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나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노리는 쪽으로 후보자간 입장정리가 됐다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나 의원은 아직 어느 것도 결정된 바 없는 상태며 결국 손 의원과 직접 만나 단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선거 구도 속에 관심을 끄는 것은 민주당 부대표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의 의중. 우선 박 시장은 최연장자이며 행정 경험까지 갖춘, 또 특별한 흠집이 없는 강 의원의 시의장 선출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의회와 견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회가 보다 젊은 색깔을 갖춰야 하며 특히 시장이 간접 지원하는 후보가 의장으로 탄생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광주시당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손 의원을 염두에 두

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유 위원장은 표면적으로 엄정중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장 내 인사들의 노골적으로 손 의원을 지원하는 상황이 여겨져서 감지되는 상황여서 유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정가에서는 오는 11일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주말께는 후보가 양자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막바지 2~3일 물밑 접촉과 자리 나누기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의원은 “역대 의장 선거에서 보듯 이번 의장 선거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며 “지금은 후보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주말께부터는 명분과 실리에 따라 의장 선거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시의회 의장 나익수씨 광양시의회 의장 김수성씨 구례군의회 의장 최성욱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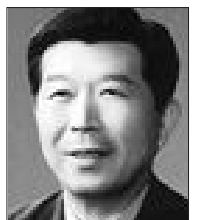
김수성 의장



최성욱 의장

나주시 및 광양시의회와 구례군의회는 3일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나주시의회 의장은 4선의 나익수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덕수 의원이 선출됐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에는 강인규, 자치행정위



나익수 의장

원장은 김세근, 건설교통위원장에는 정광연 의원이 각각 뽑혔다.

광양시의회 의장에는 4선의 김수성 의원이, 부의장에는 3선의 장석영 의원이 선출됐다.

구례군의회 의장에는 2선의 최성욱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종영 의원이 당선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라행민나 (Lahaeminna) advertisement with multiple columns of text and small images.

Advertisement for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황재한 아내 이야기!' (Thanks to my wild husband, my wife became a 6 billion fortune teller!). Includes a photo of a family and a phone number 060-700-3658.

Advertisement for '프랑스 커피' (French Coffee) featuring a coffee machine and a cup of coffe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구립분원 02-335-6901.